

특집

## 새 천년 신조류와 남북 관계

세계화 · 윤덕민

지식정보화 · 김병조

제3의 근대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목 · 전성우

# 세계화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근대화와 세계화

**백** 년 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 세력들은 앞을 다투어 동아시아로 물러왔다. 동아시아의 주요 세 나라, 중국·일본·조선은 각각 서구 제국주의들의 개항 압력에 직면했다.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하히 서구 제국들이 이룬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즉 '근대화'의 도전이었다. '근대화'란 개념은 서양의 개념인 셈이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동양적 가치를 버리고 서양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소위 '脫亞論'을 주창했다. 근대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명치유신을 통해 서구의 가치관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근대 국민 국가로 전환하여 근대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중국과 우등생 조선은 자신이 왜 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각자들의 몇몇 시도는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격이었다.

19세기말 질서의 대변혁기에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너무 빠져 새

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도 우물안 개구리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시 백 년만에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가 무너지면서 질서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가 질서의 변혁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동서 냉전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냉전 종결과 함께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백 년 전 우리는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바 있다. 이제 백 년만에 또 다른 도전, '세계화의 도전'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 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부터의 충격인 셈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물결 앞에 緒戰에 잠시 실패했다. 세계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는 지난 30년간 피땀흘려 구축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수 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나 까먹고 IMF의 관리체제에 빠져 경제적 주권을 제약받은 바 있다. 다시 백 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분단된 한반도는 세계화를 두고 정반대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한국은 세계화의 논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IMF 국

난을 극복해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세계와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한 가운데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연상케 하는 극도의 폐쇄 정책을 고집하여 세계화의 조류를 외면하

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는 분단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화의 거센 도전 앞에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의 장래는 어둡다. 반면, 세계화는 남북한의 협력을 심화시켜 평화 공존과 통일의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

### IMF의 시련과 극복

한때 우리는 동아시아 제국과 더불어 교 육열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인력에 의해 세계의 제조업을 좌우하였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고 소득 만불 시대가 도래하여,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경이적인 경제적 역동성은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혁명기에 영국과 미국은 자신의 국민소득을 배가시키는데 50~60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매 10년마다 국민소득을 배가시켜온 바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총생산은 1997년경에는 세계총생산의 32.4%에 달하

세계화의 심화는 분단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화의 거센 도전 앞에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의 장래는 어둡다. 반면, 세계화는 남북한의 협력을 심화시켜 평화 공존과 통일의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여 미국(21.3%)과 EU(20.7%)를 능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태시대, 특히 동아시아시대의 도래를 점쳐왔던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어느날 갑자기 IMF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된 일은 너무도 의외의 상황이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금융 위기에 처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모두 맞는 말이라고 본다. 그러나 금융 위기에 처하기 전에 그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말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IMF는 한국의 금융 위기 얼마 전까지도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여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이 과연 나쁜 일이었는가. 문제는 세계화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세계화는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만 있었지, 빠가 시리도록 무서운 구석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세계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는 국경을 없애고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측면도 있지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 경제의 중심을 생산 활동으로부터 금융 활동으로 옮기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 금융 거래도 초고속도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의 진면목인 세계 금융의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내일 당장 국부의 절반을 날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금융 파동을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만, 돈의 흐름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었다. 세계 외환 시장에서는 하루에 1조 5,000억 달러가 이익 실현을 위해 거래된다. 특히, 이 가운데 80%가 투기성 단기 자본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하루에 약 1조 2,000억 달러의 투기성 단기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이동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약 5,000억 달러 정도로, 하루에 움직이는 투기성 단기 자본을 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거액의 투기 자본을 움직이는 소로스 같은 인물은 거의 모든 나라를 외환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 90년대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평균 300억 달러 정도였다고 보면, 300억 달러 정도의 투기성 단기 자본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거에 빠져나간다면 외환 위기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 경제의 중심을 생산 활동으로부터 금융 활동으로 옮기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 금융 거래도 초고속도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의 진면목인 세계 금융의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내일 당장 국부의 절반을 날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금융 파동을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진행해왔다. 또한 세계화의 논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IMF 국난을 극복해가고 있다.

### 세계화에 따른 체제 변화 요구 증대

한반도의 절반 북한은 어떠한가? 지역 차원의 냉전 구도는 구소련 해체로 붕괴되었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냉전의 두꺼운 벽이 존재한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래 연일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가운데, 북한 정권은 체제 생존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록 북한은 여전히 강력하고 공세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남북 군사 균형에 있어서의 북한 우위라는 상황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된 남북간의 역학 관계와 국제적 냉전 종결은 전통적인 한반도 긴장 구도의 다이너미즘을 변화시켜 국제 냉전의 일환으로서의 한반도 긴장 구도

를 남북한만의 긴장 구도로 변질시켰으며, 긴장의 본질도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에서 흡수 통일 내지는 북한 붕괴 가능성에서 야기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래, 9년 연속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등 최악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있던 북한 정권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군사 중심의 새로운 김정일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의 신체제는 소위 '先軍領導體制'로 제국 일본의 군국주의 모델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 기관이 되는 한편, 군부가 정치 전면에 부각되었다.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당정의 통제력이 이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식량을 얻기 위한 주민 이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북한 정권은 배급제도와 주민 이동 통제라는 두 가지 기본적 메커니즘을 상실하였다. 더욱이 지방이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상당히 이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물리적 폭력과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는 군에 의존하여 통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신체제는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과 지지 기반을 주체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과 지지 기반을 주체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 중심의 '선군영도체제'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황에 단편적으로 적응해가면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모색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여하히 군 의존성을 줄이고 정상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관건은 경제 회생 여부일 것이다.

나 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 중심의 '선군영도체제'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황에 단편적으로 적응해가면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모색해갈 것이다. 북한 정권은 선군체제를 통한 대내 통제 강화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렛대로 한 대외 지원 확보를 통해 베를린장벽 붕괴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으며, 현 정책 방향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 아래, 체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혁·개방보다는 현재 노선을 고수하면서 '그럭저럭 버티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여하히 군 의존성을 줄이고 정상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관건은 경제 회생 여부일 것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외견상 세계화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세계화는 북한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세계화의 심화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사활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비록 북한 정권이 외견상 세계화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세계화는 북한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김정일 정권은 점점 증대되는 체제 변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스탈린식 통제 경제에 입각한 현 주체체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북한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리더십 변화를 통한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 자포자기 심정에서의 외부 폭발(explosion), 내부 붕괴에 따른 구동독 형태의 소멸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즉, 세계화는 북한 정권에게 불가피하게 체제 변화의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래, 세계 경제 질서는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질서로 일원화되었다. 심지어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국조차도 얼마 전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에의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일국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째, 세계화는 지역주의 추세를 강화시켜 북한을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의 참여로 유도할 것이다.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내의 협력이 긴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U·NAFTA 등의 활성화가 지역주의 경향을 말해준다. 따라서 세계화의 심화는 자연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관계국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일정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북한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연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이유는 물론 그 속성상

세계화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도의 폐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넷·팩스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 통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김정일 정권은 점점 증대되는 체제 변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스탈린식 통제 경제에 입각한 현 주체체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북한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리더십 변화를 통한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 자포자기 심정에서의 외부 폭발(explosion), 내부 붕괴에 따른 구동독 형태의 소멸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

###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

일단 세계화는 예상치도 못했던 긍정적 영향을 남북 관계에 미친 바 있다. 세계화의 여파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는 남북 관계를 둘러싼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우선 한국의 금융 위기는 한국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한시켰

다. 즉,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한국 경제는 북한의 내부 붕괴나 한반도의 긴장으로 인한 사태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통일보다는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중점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에 따른 금융 위기는 한국으로 하여금 햇별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의 경우도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 하에서 더욱 한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는 북한에 대한 대외 투자 기회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이 정경 분리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남북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세계화의 흐름이 남북 교류를 촉진하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가 반드시 한반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화를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미 경험한 금융 위기를 또 다시 겪을 수도 있으며, 무한

북한을 세계화 대열에의 동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북한의 세계 질서 편입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세계화 흐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이해없이는 牛耳讀經의 상황을 면할 길이 없다. 북한 정권에게는 매우 무서운 현실이 다가와 있다. 세계화의 조류에 동참하여 남북 교류와 지역 협력의 심화를 통해 연착륙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화와 격리된 채 폐쇄 정책을 지속하여 궁극적인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를 선택이다. 어느 쪽이든 선택의 결과는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시대에 선두 주자 대열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절반이 세계화의 조류에서 격리된 상황에 있는 핸드캡을 갖고 있다. 결국 분단이라는 핸드캡을 극복하는 일, 즉 북한을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을 세계화 대열에의 동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북한의 세계 질서 편입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세계화 흐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이해없이는 牛耳讀經의 상황을 면할 길이 없다. 북한 정권에게는 매우 무서운 현실이 다가와 있다. 세계화의 조류에 동참하여 남북 교류와 지역 협력의 심화를 통해 연착륙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화와 격리된 채 폐쇄 정책을 지속하여 궁극적인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를 선택이다. 어느 쪽이든 선택의 결과는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7